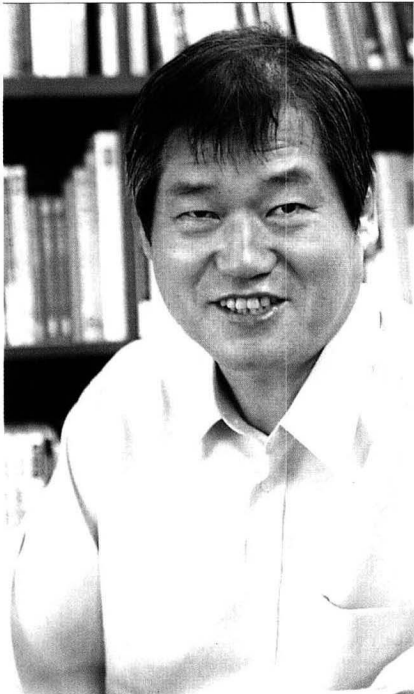


불가능에서 발견한 미래의 가능성



《영화에서 만난 불가능의 과학》이종호 지음/쓰담출판사 | 2017년 12월 | 2,000원



우리가 실패를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똑같은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불가능 역시 마찬가지다. 젊은 사람들에게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쓸데없는 데 젊음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있으니 젊은 내가 한번 도전해 보라는 독려다. 특히 과학은 그 불가능의 영역을 좁혀온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에서 만난 불가능의 과학》(이하 불가능의 과학)은 '투명인간', '공간이동', '타임머신', '초광속비행' 등 SF영화에서 사실적으로 그려진 첨단과학들이 현대과학으로 실현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고 있다. 물론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그의 답은 지금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벨상이 만든 세상”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가능성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 《불가능의 과학》은 불가능한 것을 통해 지금 우리 과학의 현주소를 밝히고, 또 이를 통해 보다 쉽게 과학을 이해해 보자는 뜻이죠.”

그동안 다수의 공상과학소설과 대중과학서를 손에 인이 박히도록 써온 이종호 씨(55)로서도 이번 작업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사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수고가 들지 않는다. 굳이 복잡한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사람들은 호기심에 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가능은 다르다.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모를까 일단 말을 꺼낸 이상 왜 불가능한지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 대중과학서를 쓸 때 수학공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불가능의 과학》에서 지키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그만 공식을 두 개나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타임머신과 초광속비행의 불가능에 대한 부분인데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공식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더군요.”

아인슈타인만큼 SF영화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것도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박사는 청소년들이 불가능을 확신함으로써 발상의 전환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에게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영화를 매개로 선택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발상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한자를 공부한다거나 고전을 읽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바탕을 기본

으로 새로운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죠. 하지만 과학자인 저로서는 과학자들이 발명을 한 과정을 짚어본다거나 이처럼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발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계를 알면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니까요.”

이 박사의 다음 작업은 '세상을 바꾸어놓은 과학자' 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미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이 책은 인터넷 때문에 점점 족집게 과외교사화 되어가고 있다는 현직 과학 선생님들의 고민을 듣고 나서 구상했다.

“정보의 출처가 동등해지니까 선생님이 새로운 이야기라고 해줘도 이미 학생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가령 유클리드의 기하학이면 단순히 기하학을 설명해 줄 게 아니라 기하학이 인류의 삶에 끼친 영향이나 과정 등과 같은 전후 맥락을 이야기해 줘야 하겠다고요.”

과학은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쉽지도 않다. 단지 과학은 재미있다. 이종호 씨와 같은 과학저술가란 다음아닌 그 재미를 파는 사람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종호 씨가 재미로 인해 더 복잡하고 신비한 세계를 풀어낼 것이다. **이문**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